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장애인주일메시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지난 2월 23일 68세의 일기로 별세하신 고 강영우 박사님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 한꺼번에 몰려와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저주 받은 인생이 되고야 말았 습니다.

13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그 다음해 축구공에 맞아 망막박리로 시력을 잃게 되 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그 해에 또 세상을 떠나시고, 졸지에 가장이 된 큰 누나는 봉 제공장에 취직해 밤낮없이 2년을 일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은 두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던 시각장애인 강영우. 그러나 그는 그 저 주스러운 역경 가운데서도 신앙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그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장애 가운데 가장 불편하다는 시각장애를 딛고 일어나 그는 4성 장군급인 백악관 장애인 위원회 정책차관보로 임명돼 6년 동안 일했으 며, 유엔 세계 장애위원회 부의장,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루스벨트 재단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랑과 비전을 전 하는 강연자로, 탁월한 저술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확신 가운데 고백합니다. 자신의 장애는 저주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하나 님의 축복의 통로였다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20% 정도가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천성 장애 보다는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생기는 후천성 장애가 더 많습니다. 사실 저도 한 쪽 귀를 듣지 못하고, 가끔 어지럼증이 오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약함 가운데 여전히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 기를 발합시다.

한편, 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더욱 더 사랑하고 배 려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엘리베이터를 양보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분들이 필요 로 하는 것을 잘 안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 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장애인들을 생각해 보는 장애인주일입니다. 약함 가운데 더욱 더 강하다 는 믿음의 고백이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배려와 함께 주님 앞에 드러지는 향기로 운 제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 박 노 철

2012년 주요 행사별 섬김위원 발표

우리교회 당회는 2012년 주요 행사별 섬김위원을 로 순종하며 봉사하도록 기도한다. 일괄 발표하였다. 행사 섬김위원들이 청지기의 자세

홍해작전			바자회			사명자 대회		
6.6(주)-6.25(금)			9. 20(목)-9.21. (금)			10.7(주)-11.25(주)		
부장	오정환		부장	김광신		부장	노문환	
차장	오승민		차장	최광성		차장	오치열	
기획	윤병구	윤기정	기획	백승갑	권오걸 김홍기 신부식 장장수 장삼국	진행	최양권	
예배	김광욱	윤동수 외 예배 안내위원 찬양대 차장 피택장로전원 윤요섭(방송)	재정	송인수	이안순 정경자 이경란	홍보	정지은	
동원	최형열	교구부교구장 교구간사 전원	판매 관리	예완식	정수환 강나훈 김영희1 남태순 김선영1 경미연 최금숙 최종희 구진경	전도	주동계	
			섭외	김상태	이종장 진승근 김광태 황병석 박명원1 정진문	기도	원용규	
홍보	김규태	허숙	홍보	서준식	유은경 최영철 오주명 최건경	교육	최자순	
봉사	김선영1 서영희	제2권사회 및 도르가, 루디아 배희, 마리아, 에스더 전도회 회장 (오선애 김지연 최종희 전숙향 김전희)	시설 관리	이동만	은기장외 제1,2스데반회 회원	재계	이강인	
							교육	최자순
차량	1,2스데반회 (최규초, 이동만)	피택장로전원 차량관리부원	차량	최규초	김광훈 이남성 김혜수 김중철1 강태근 김경호 박종우 남경열	봉사	1,2스데반회 (최규초 이동만)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44]

(문 39)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이 주어진 이후에도 중혼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출20:14)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몸종 하갈을 얻어 자식까지 낳았고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종 빌하와 실바를 통해 많은 자녀를 낳고 복을 받았다고 했으니 이해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십계명은 모세 때 주어진 것이므로 이들 족장들은 십계명 이전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모세 이후에 살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사무엘하 12:7-8에 의하면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라고 한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다처 제도를 용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9에서 일부일처 제도를 강력하게 피력하신 말씀과 상충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통해 심한 책망을 받았고 응징을 받았습니 다.

창 2:23-24에서도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에게 일부일처제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엡5:35 이하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여러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여러 몸을 가진 것이 아닌 한 신랑과 한 신부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일부다처제도는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일부다처제는 므두사엘의 아들 라벨의 노래에서 찾아집니다. 그 후 아브라함까지는 두 아내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여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어도 그로 인해 받은 대가는 너무 아프고 쓰린 상처였음을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라는 한 여인과만 결혼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예서는 다시 일부다처제를 택하였습니다. 야곱의 경우는 외삼촌에게 속아서 두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고 그들의 질투로 두 여종들까지 야곱의 자식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것을 오히려 자녀의 변영으로 이어주셨으나 그로인해 야곱은 엄청난 가정비극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첩)를 얻는 것은 7계명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내는 첫 번째 아내와 같이 모든 것을 제공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간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더욱이 아내와 사별한 이가 두 번째 아내를 얻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자녀로부터 어머니의 자리에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혼은 하나님의 뜻에는 반하나 인간의 마음의 약함을 아시고(마19:8) 어둠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도 묵인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도 중혼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묵인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부부일신 사상이 강조되고(마19:5-6) 있는 것으로 보아 성경은 일부다처 제도를 용납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계속)

호산나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7명 국립 국가기록원 직원으로 최종합격



지난 3월 30일(금) 국립 국가기록원의 장애인 직원 채용 최종면접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있었다. 1차 서류전형에 통과한 지원자 60여명 중 호산나대학 전공학부 재학생 및 졸업생 7명이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 하였다.

성경통독자 시상 - 오늘 찬양예배 시

- 필사 : 3교구 박석현 집사 · 타자2독 : 10교구 박길순 집사
- 1독 : 3교구 김수정 집사, 5교구 최광혁 집사, 6교구 강영순 권사, 함은희 권사, 서영세 권사, 9교구 이남성 집사, 16교구 장양일 집사

4월 학습 · 세례식

4월 22일(주) 찬양예배 시 거행

4월 학습 · 세례식이 22일(주일) 찬양예배 시에 거행된다. 지금까지는 수요예배 시에 있었으나 금년 4월과 10월 학습 · 세례식은 찬양예배 시에 있게 된다. 나머지 6월, 8월, 12월 학습 · 세례식은 종전과 같이 수요예배시에 있게 된다.

김명현 박사 초청, 금요기도회

4월 20일(금), 27일(금) 성경과학선교회 대표이신 김명현 박사를 다시 한번 모시고 생명의 창조기원과 간증의 시간을 가진다.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권면하여 주시고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 강사에 대한 약력은 다음과 같다.

-김명현 박사 소개-

- KAIST 재료공학 석,박사
- 전 한동대학교 교수
- 전 한국창조과학회 이사
- 현 성경과학선교회 대표



'우리 다락방 자랑' 기사 모집

순례자는 봄을 맞아 다락방의 따뜻한 이야기,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소개하고, 아름다운 사연 등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원고를 제출하실 분은 사무국이나 이메일 yoolulu@hanmail.net로 보내시면 된다

3개교회 친선 족구대회

청주동산교회 주관으로 한밭교회, 서울교회 3개교회 족구대회가 4월 21일(토) 청주동산교회에서 갖는다. 오전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

- 서울교회 엘리베이터 - 이렇게 이용합시다

교통약자(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과 휠체어 등의 신체보장구를 이용하는 성도와 영유아부 어린이)들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양보합시다.

장애인 주일

편견의 벽을 넘어

인인호 집사(에바다부 부장)

수일 전, TV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탈락자를 발표하던 한 심사위원이 “부모들은 아이들이 인종이 다르거나 피부색이 다르다고 놀리지 않도록 많이 가르치고, 교육 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색하고 답답한 나라가 있을까 싶다”라고 인종차별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에 의해서 희생 되었다”고 탈락의 원인을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피부색이라는 편견의 벽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이건 아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것이지요.

죄나 저주 때문에 장애가 생겼다는 생각, 집안의 수처라는 생각 등등으로 쉬쉬하며 장애인을 집에 숨겨두고 몰래 키우고 격리하던 시절은 아니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장애만 보고 장애인을 보지 못하는 편견이 여전히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장애인을 불쌍하게 여기고 고쳐주고 돌보아주어야 할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하는 장애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찬



양하며 경배하는 에바다부 형제 자매들이 11시20분 주일예배뿐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며 주일오후와 화요일에도 성경공부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다부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손잡고 같이 가야할 아름답고 귀한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하여 많은 성도님들께서 관심과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시고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의 사랑 속에 서울교회의 한가족됨을 느끼게 됩니다.

에바다부 성도들도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있지 않고, 더욱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열심히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아멘.

수화 배워봅시다!



· 안녕하세요
· 가슴에서 양손을 살짝 주먹 쥐고 동시에 조금 내립니다.



· 반갑습니다
· 양손을 약간 구부려서 손끝을 가슴에 댄 후 엇갈리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 고맙습니다
· 오른손 검지 끝부분을 턱 중앙에 두번 갖다 댓니다.
· 오른손을 펴서 왼손등 위에 대고 두번 두드립니다.

편지왔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인류의 소망과 생명 그리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과 사랑이 박노철위임복 사님과 교회 그리고 온 성도님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한국을 넘어 인도를 넘어 온누리에 가득차기를 소망합니다.

인도에서 우상식, 김정옥선교사 올림



The Resurrection. He has been raised.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과 소망을 안겨줍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어느때 보다도 저에게는 수치의 십자가, 육체적 고통의 십자가, 단절의 십자가, 죄의 십자가를 깨닫는 힘든 광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바다부 수화찬양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에바다부(부장 인인호 집사)는 찬양예배 시간에 특별찬양으로 수화찬양을 드린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3:16-17)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가슴에 감동과 희열이 넘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우리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축복을 누릴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필라우에서 정상진 · 홍성림선교사 올림

천국시민양성-중등부 영어뮤지컬을 마치고

He has Risen

남유라 (중등부)

지난 4월 8일 부활주일에 중등부 학생회에서 준비한 영어뮤지컬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He has risen"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2월부터 매주 모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매 주일 모여 연습했지만 시간이 모자라고 진행이 더디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남들은 학원가고 숙제 할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만을 위해 아이디어 내고 일일이 맞춰보고... 어쩌면 부담스러운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또한, 부활주일을 그냥 달걀 먹는 날이라고만 생각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 모르는 새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습니다. 뮤지컬을 통해 우리를 위해 어떠한 고통도 참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설 때 떨려서 한마디도 못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잘 할 수 있어 너무 뿌듯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영어뮤지컬이라 친구들이 더 집중해서 저희를 지켜봐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친구들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되어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친구들과끼리 서로서로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서로 더욱 친해졌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또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뮤지컬을 위해 애쓰신 목사님과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회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학생들이 중등부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중등부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영어예배의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찬양대(부장/유을상 집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심상희 권사의 지휘로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주 예수 이름 높이어), "ISAIAH'S Vision / Holy is the Lord on High" (이사야의 비전 / 거룩하시도다 높으신 주여) 등 세곡을 최수황 집사의 오르간과 이승민 집사의 피아노 반주로 찬양드린다. 또한 타악기에 윤주일 집사(가브리엘찬양대 팀파니스트)와 그레이스 핸드벨콰이어 단원이 함께 연주한다.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5일(주) 호주 멜본 한인교회 주일예배 설교한다. 16일(월) 멜본 목회자세미나를 인도한다. 18일(수) 골드코스트 온누리교회 수요일예배 설교, 19일(목) 골드코스트 목회자세미나를 인도한다. 시드니 주안교회 목요일예배 설교를 한다. 20일(금) 시드니 목회자들과 목회상담을 한다.
- 사업장 이전: 15교구 신용식 장로 (주)르본, PCK, 까베양 강남구 논현동 57-15
- 연주회: 2부예배의 팀파니스트로 봉사하고 있는 박광서 집사(한예종 음악원장)는 4월23일 오후8시, 예술의 전당에서 교향악축제기간중 쿠누아시포니 오케스트라와 팀파니협주곡을 연주한다.
- 득녀: 12교구 천정윤 집사 김희정 성도

- 주간식당봉사: 마리아전도회(4.15) 한나전도회(4.22)
- 금주의 식사: 정연택 권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한마음 · 한가족 잔치

성도간의 화합과 영적 연합

최형열, 송인권, 김광태 집사(2,3,4교구 각 부교구장)

유문건 목사님이 지도하는 2,3,4교구는 논현,신사, 청담,압구정,삼성동(2교구), 역삼,도곡(3교구), 서초구 전체(4교구)등의 지역으로서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곳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과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리며, 2,3,4교구 가족들이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저 "한마음 한가족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19일 토요일 베델하우스로 2,3,4교구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나이 많으신 어른년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열린 마음과 편안한 옷차림으로만 오시면 부담 없이 참여 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준비하시는 2,3,4교구 교구장, 부교구장, 간사, 다락방장, 부다락방들은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기도

하겠습니다. 잔디구장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운동장이 있는 전망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차가 쉽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크닉 오신 가족처럼 즐겁고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찬양과 예배, 교제, 레크레이션과 행운권추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은혜, 기쁨, 즐거움, 웃음,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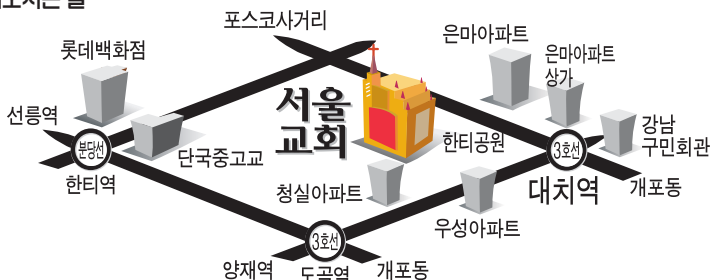
"한마음 한가족 잔치"를 통하여 성도간의 화합과 영적 연합으로 한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사랑의 증인으로서 같은 사랑을 가진 한가족을 이루어, 주님 주신 영육을 강건하게 단련하여 부흥에 이르기까지 힘써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적절한 구름을 머금은 맑은 하늘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5월19일(토) 베델하우스에서 행복한 만남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장애인들을 향한 더 큰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서울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도록
2. 금요일기도회 김명현 박사 앵콜 초청 창조과학 특강을 통해 모든 성도들과 모든 다음 세대들 심령 가운데 창조주 신앙이 굳게 세워지도록
3.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많은 세미나와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이종윤 원로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